

<엣지 오브 게이트> 세계관 배경 설정

실바니아



실바니아는 다양한 인류가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으로 타 국가에 비해 한발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로서 떠올랐다. 자연스레 실바니아는 인류 문명의 중심지로 성장했고, 특히 압도적으로 발달한 생명공학의 발전은 시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다양한 기술을 접목시킨 '나노 머신'은 실바니아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었으며, 실바니아를 상징하는 독자적인 기술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뛰어난 유전공학의 지식은 인류의 신체 조직을 영구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강화 인간을 배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 개개인의 질을 높였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 직면한 VIP 서비스 이용자의 응급 처치 시도 후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술은 정부와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급되어 소수의 정부 권력자들과 연구진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었고 일반 시민들에게는 제한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인다. 개인이 가지는 직업과 생활 수준에 따라 빈부격차가 나뉘며 공공 차량 서비스의 등급이나 등을 이유로 소수의 엘리트들이 다스리는 구조가 되었다.

세레니아



실바니아 중심에는 수도 세레니아가 있다. 세레니아는 모든 의료 기술의 핵심 연구소가 모여 있는 도시로, 실바니아가 범세계적인 최고의 의료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된 구역이다. 이곳에는 크고 작은 병원들을 구분하지 않고 수준 높은 치료를 목적으로 구급차 모듈이 항상 대기하여 의료 시설을 제공하고 있고, 생명공학 연구와 관련된 인프라가 다수 존재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생명공학과 관련된 연구진으로 포진되어 있다.

헌터 협회의 본부가 세레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 기관의 눈을 속이기 위한 곳으로 진정한 주요 시설은 언더조이에 위치해 있다.

헌터 협회



본래 인력 사무소로 시작했던 소규모 기업으로,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파견하여 인재를 육성하는 집단이었다. 이 인력 사무소를 눈여겨 본 실바니아 국가는 이 인력 사무소와 계약을 체결, 갑을 관계의 민간 군사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

실바니아의 철저한 통제 하에 임무가 부여, 진행되었고 모든 인원은 훈련생을 포함하여 함구령이 내려지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외출조차 금지되는 일이 빈번했다. 애초에 실바니아가 국제적인 정치외교로 인해 공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불법 공작을 진행하기 위한 계약이었으며, '하운드'라는 이름의 특수임무대로서 의무를 부여받은 이들은 언제 토사구팽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부의 눈을 피하고자 언더조이 지하 깊은 곳에 비밀스러운 기지를 건설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의 시간이 흐른 뒤, 하운드가 타국에서 활동했던 흔적이 발견되었고, 실바니아 국가는 발빠르게 하운드 소대를 국가 내란죄라는 명분을 들이밀며 반동분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하지만, 그들은 하운드라는 이름을 버린 지 오래였고 이젠 언더조이의 뒷세계에서 자신들을 '랩터' 라고 불렀다. 헌터 협회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첫번째 게이트가 스피티아에 열렸을 때, 실바니아 정보부보다 발빠르게 게이트의 존재를 눈치챈 헌터 협회는 소규모 조사대를 꾸려 게이트로 향했다. 그 과정에서 헌터 협회장인 니콜라이를 포함한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망하였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것은 유전 공학자인 피터 스틸러 뿐이었다. 그렇게 정체불명의 첫번째 게이트는 그대로 허망하게 사라지고 만다.

이 사건 이후 니콜라이의 딸인 아리아가 성장하여 정식으로 헌터 협회장을 맡기 전까지, 그의 절친이었던 마이클이 임시 헌터 협회장으로 위임하게 된다.

언더조이



언더조이는 모종의 이유로 사회에서 도태된 인원들이 모여 사는 판자촌, 슬럼 구역을 지칭한다. 독보적인 생명공학 보유국이라는 타이틀의 실바니아도 양극화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다.

실바니아가 자랑하는 최고급 의료시설은커녕, 하루 한 끼를 저품질 합성 콩고기로 연명하는 부랑자, 세레니아의 연구 시설에서 쫓겨나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시민, 처음부터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채 태어난 아이 등. 가진 것 없고 잃을 것 없는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언더조이이다.

해당 구역은 사회와 격리되어 있으며, 공권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무법지대와 다름이 없다.

헌터 협회의 비밀 기지가 언더조이 지하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으며, 내부엔 장비 설계를 위한 3D프린터 기기, 헬민스의 유전적 정보를 역 설계 후 원활히 구현할 수 있는 유전공학 연구소, 풋내기부터 베테랑까지 폭넓게 유용할 수 있는 훈련장 등이 구비되어 있는 본격적인 시설이다.

네오스



실바니아의 신도시 개발 구획.

세레니아와 인접해 있으며 기존의 도태된 건축물들은 철거, 시대를 앞선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 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구획이 될 예정이었다.

이곳에서 거주 중이던 하위 계층의 시민들이 강제 퇴거 당하여 대거 언더조이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해, 하위 계층의 불만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정부가 앞서 민심을 외면하면서까지 투자했던 야망의 도시는, 현재 헬민스의 유용한 거점이 되어 흥측하게 무너져 내린 폐건물과 거주지를 약속 받은 시민들이 감염된 채 떠도는, 그런 절망만이 도사리는 도시가 되었다.

스피티아



과학 기술이 크게 발전한 현재, 실바니아 국가 내에서 자연의 보존율이 가장 높은 구획이다. 15년 전, 모종의 이유로 민간의 접근이 엄중히 통제되었고 이를 경계 및 보호하는 인원 또한 함부로 내부에 접근할 수 없다.

극소수의 인원만이 내부를 조사하기 위해 내부로 진입하였고, 구획한 한 가운데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크레이터에서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 물질과 미생물 몇 종을 검출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연구함으로써 신종 미생물이 유기 생명체에게(인간에 더욱)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아냈다.